



논문목록

Interpretation of “negative” studies in occupational epidemiology, Ahlbom A ; Axelson O ; Stottrup Hansen ES ; Hogstedt C ; Jensen UJ ; Olsen J.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0, 16(3) p153-157

Risk of colorectal cancer among automotive pattern and model makers. Tilley BC ; Johnson CC ; Schultz LR ; Buffler PA ; Joseph CL, *J Occup Med* 1990, 32(6) p541-546

Excess insured health care costs from tobacco-using employee in a large group plane. Penner M ; Penner S. *J Occup Med* 1990, 32(6) p521-3

Epidemiological evidence indicates asbestos causes laryngeal cancer. Smith AH ; Handley MA ; Wood R, *J Occup Med* 1990, 32(6) p499-507

Gastrointestinal cancer among cement workers. A case-referent study. Jakobsson K ; Attewell R ; Hultgren B ; Sjolund K,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337-40

Ventilatory function of workers exposed to cobalt and diamond containing dust, Gennart JP ; Lauwerys R.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333-6

Biological monitoring of exposure to monochlorobenzene. Kusters E ; Lauwerys R,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329-31

Stress-related changes of saliva cortisol in VDU operators, Schreinike G ; Hinz a ; Kratzsch J ; Huber B ; Voigt G,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319-21

Studies on erythrocyte pyrimidine 5'-nucleotidase (P5N) test and its evaluation in workers occupationally exposed to lead, Ichiba M ; Tomokuni K.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305-10

32P-postlabelling analysis of DNA adducts in monocytes of smokers and passive smokers, Holz O ; Krause T ; Scherer G ; Schmidt-Preuss U ; Rudiger HW.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299-303

Circadian rhythm of rectal temperature in man with two different types of clothing, Jeong WS ; Tokura H.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295-8

Occupational ethylene oxide exposure and reproduction. Florack EI ; Zielhuis GA.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273-7

Embryotoxic/teratogenic potential of halothane. Baeder C ; Albrecht M.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62(4) p263-71

Occupational risk factors for cancer of the pancreas ; a case-control study, Pietri F ; Clavel F ; Aupuier A ; Flamant R. *Br J Ind med* 1990, 47(6) p425-8

Carpal tunnel syndrome in vibration disease, Koskimies K ; Farkkila M ; Pyykko I ; Jantti V ; Aatola S ; Starck J ; Inaba R, *Br J Ind Med* 1990, 47(6) p411-6

Evidence for adverse reproduction outcome among women microelectronic assembly workers, Huel G ; Mergler D ; Bowler R, *Br J Ind Med* 1990, 47(6) p400-4

Mortality and disability among cotton mill workers, Koskela R ; Klockars M ; Jarvinen E, *Br J Ind Med* 1990, 47(6) p384-91

Occupational health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workplace ; looking backwards and going forwards? The Industrial Health Education Society at work 1922-40

Prophylaxis of asbestos-induced diseases ; studies and perspectives. Kogan FM ; Polzik EV. *Am J Ind med* 1990, 18(1) p95-9

Altered immune status in aluminum reduction plant workers. Davis RL ; Milham S JR, *AM J Ind Med* 1990, 18(10) p79-85

주요논문초록

『백인여성에 있어서 저체중아와 직업과의 관계』

저자 : Virji SK, Talbott EO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
08(5) 351-358

저체중 탄생아(Low Birth Weight, <2500g)와 직업사이의 관계가 1980년 세계 출생 조사에서 3300명의 백인여성들에게서 연구되었다. 체중과 직업, 흡연, 알콜, 경제수준, 연령, 교육, 산전관리, 임신중 체중, 태아의 성별 등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많은 분석이 수행되었다. 직업과 저체중아의 상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사무직 여성들과 (132/1000) 비교하여 노동직 여성들에게서 (162/1000) 저체중아 출산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

동직 여성들의 탄생아 출생체중 평균은 사무직 여성들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 < 0.057$).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에서 혼란변수의 영향을 조정한 후 저체중아 출산률과 직업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제한점일지도 모르는 타당성 문제는 계속 논의 되어져야 할 것이다.

『석면폐증은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저자 : Edelman DA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
62(5) : 345-349

석면취급 근로자들에 있어서 석면폐증이 있는 근로자들과 석면폐증이 없는 근로자들의 폐암위험이 같은지는 이 문헌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석면 취급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에서는 임상증상과 X-ray상 비흡

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고, 어떤 연구에서는 석면폐증이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흡연자 또는 흡연경험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흡연은 폐암의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습관은 석면폐증 근로자들을 석면폐증이 없는 근로자들 사이의 폐암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연구는 석면폐증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석면폐증 근로자들의 폐암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폐암의 위험과 석면폭로, 흡연과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석면폐증 근로자들의 폐암위험이 높은 것은 단지 그들의 흡연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만 보기에 어려움이다. 어떤 연구는 석면폐증 근로자들이 폐암의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하지만 용량-반응 관계가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폐암의 위험과 석면폐증, 흡연과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인체의 폐조직에 있어서 카드뮴 농도』

저자 : Kollmeier H, Seemann J, Wittig P, Rothe G, Muller KM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 62

(5) : 373-377

101예의 부검에서 폐조직에 있는 카드뮴을 flameless원자흡광기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예들은 Muenster(MS)근방 뿐만 아니라 Ruhr 지구에 이웃해 있는 도시(BO/DO)와 Bochum (BO), Dortmund(DO)로 부터 얻어졌다. 이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기관지암으로 사망한 8사람 이었다. 폐조직의 카드뮴 농도(CdL)와 연령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단지 50세 주변에서 경미한 증가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CdL의 평균값은 28-45세 그룹이 1.32 $\mu\text{g/g}$, 45-65세 그룹이 1.48 $\mu\text{g/g}$ 이고, 65세 그룹보다 0.64 $\mu\text{g/g}$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CdL 농도가 여자의 경우보다 두배 더 높았다. 조사된 두지역 (BO/DO : MS)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기관지암 경우 CdL은 기내수준 이상이었고, 가끔 같은 표본에서 Cr과 Ni 농도가 비슷하였다. 흡입된 금속 aerosol의 총량외에 불충분한 폐의 정화작용이 폐실질(lung parenchyma)에 금속을 축적 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흡입과 질환을 원인결과 관계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직업, 환경, 흡연습관과 관련된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 산업보건 세미나 성료

협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세미나가 7. 3 서울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관계기관, 보건관리자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보건관리 실무자가 살펴본 중소기업 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 (서울지부 하은희 예방의), 근로자 보건관리대책 (고려대 의대 염용태 교수)에 대한 연구 발표와 사례발표((주)모나미 보건관리자 염동숙)를 들은 후 토론회를 가졌다.

